

출 장 보 고 서

I. 출장개요

1. 출 장 자: 안성배 실장, 윤상하 팀장, 김효상 팀장, 정영식 선임연구위원, 백예인 부연구위원, 김성철 수견공무원
2. 출장기간: 2023.12.06-2023.12.08(2박 3일)
3. 출 장 지: 일본 도쿄
4. 출장목적: “The 16th Trilateral Workshop of PRI-CASS-KIEP” 세미나 참석

II. 출장일정

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12월 6일	김포 → 도쿄	· 이동(김포 공항→하네다 공항)	NH 864
12월 6일	일본(도쿄)	· 환영 만찬 참석	-
12월 7일	일본(도쿄)	· 세미나 참석	
12월 8일	도쿄 → 김포	· 이동(하네다 공항→김포 공항)	KE 2102

III. 활동내용(요약)

사전목적	성과 및 목적 달성내역	목적 달성도	비고
세미나 (개회사, 주제발표, 지정토론, 사회, 폐회사 등)	· 개회사 및 폐회사_안성배 실장 · 제1세션 발표: Recent developments and outlook for the Korean economy_윤상하 팀장 · 제1세션 토론: Economic outlook after the COVID-19 pandemic_김성철 수전공무원 · 제2세션 사회: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_정영식 선임연구위원 · 제2세션 토론: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_김효상 팀장 · 제3세션 토론: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population and policy responses_백예인 부연구위원 · 세미나 준비 및 KIEP 총괄_김효상 팀장 · 행사 추진위원_안성배 실장	100%	-

IV. 관찰 및 평가

-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는 매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사회과학원, 일본의 재무성 산하 경제연구소인 PRI가 함께 참여하는 컨퍼런스로 올해는 PRI의 호스팅으로 일본 동경에서 개최
 - 컨퍼런스는 12/7(수)일 저녁만찬으로 시작하여 6/8(목)일 총 3개의 세션에서 총 9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에 관련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 올해 세미나는 한중일 3국은 저출산 심화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대응과 관련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
 - 제1세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전망, 제2세션에서는 각국의 저출산 문제, 제3세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격차 발생 및

지역소멸에 대한 논의가 진행

- 대체로 일본 발표자들은 관련 주제에 관하여 보다 미시적인 내용을 발표 및 토론을 한 반면, 중국 발표자들은 거시적인 내용과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진척 정도와 관련하여 제도적 완비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
- 금번 Trilateral Workshop은 올해 16번째 세미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첫 대면 회의로 진행하였으며, 매년 한중일 경제연구기관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연구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안성배 KIEP 수석이코노미스트, 와타베 아키라(WATABE Akira) PRI 원장, 펑밍(FENG Ming) CASS 부장*은 코로나19의 영향, 지정학적 긴장, 동아시아의 인구 통계적 문제 등 세계 경제여건의 어려움에서도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하는 물리적 중요성을 강조
- * 리쉐쑹(LI Xuesong) CASS 국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후 세션부터 참석

V. 상세내역

1. 세션별 논의사항

1) 제1세션: Economic Outlook after the COVID-19 Pandemic

□ 발표 1. Economic Outlook and Fiscal Policy in Japan (UEDA Junji)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5.26%, 2024년 2.26%를 전망
 - 그 구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84%(2023년), 2.10%(2024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1.80%(2023년), 0.94%(2024년)를 전망
 -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은 가계 소비가 회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코

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부분의 기여가 높음

- 작년 상방요인이었던 유가가 올해에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견인
- 고용시장에서 노동수요 부족,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 상승률이 2.0%(2023년)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일본의 자본,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안정적인 임금 상승, 소비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것을 기대
- 일본 재정수지의 균형은 향후 경제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라 정부부채 규모가 현재 GDP 대비 210.6% 수준에서 2032년 170.7%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이는 일본 경제가 평균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 2%, 명목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서의 전망이며, 실질, 명목 경제성장률이 0%대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32년 206.6% 수준을 유지
 - 향후 국가안보*, 녹색전환**, 저출산 관련 정책지원 등이 재정수지 균형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 * 일본의 국방비 지출 예산은 2023-27년 43조 엔으로 19-23년 계획의 1.6배 증가
 - ** 녹색경제 투자 지원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20조엔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 일본은 육아-보육 지원 가속화 계획(Acceleration plan for child and childrearing support, 2024-26)을 마련하였으며, 젊은 세대의 소득 제고, 육아휴직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
 - * 예산은 현재 3조엔 수준

□ 발표 2. The 2035 Vision Goals of the Chinese Economy and Its Driving Forces (FENG Ming)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2%를 전망하며, 이는 2020-23년 평균 4.7%보다 0.5%p 높은 수준

- 2023년 경제성장률은 1분기 4.5%, 2분기 6.3%, 3분기 4.9%(전년 대비)이며, 견조한 생산에 비해 최근 유효 수요 부족이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인식

- 최근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로 2023년 3분기 명목 경제성장률은 4.0%를 기록하였으며, 근원 물가상승률도 1%를 하회

- 최근 노동시장은 수요 부족과 공급 확대*로 청년층의 실업률(21.3%, 2021년 6월 기준)이 상당히 높음

* 2023년 기준 대학 졸업자가 1,158만 명으로 역사적으로 최고점

-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가 온건한 선진국(moderately developed countries) 수준에 도달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중국의 도시화율을 감안 하였을 때, 20,000-25,000달러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35년 중국의 1인당 GDP가 25,000달러(20,000달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23-35년 평균적으로 5.3%(3.5%) 성장이 필요

- 2022년 기준 1인당 GNI는 미국 76,370달러, 독일 53,390달러, 일본 42,440달러, 한국 35,990달러, 중국은 12,850달러임(World Bank, WDI)

□ 발표 3. Recent Developments and Outlook for the Korean Economy (Yoon Sang-Ha)

-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으며, 1인당 GDP는 2022년 45,467달러(PPP 기준)로 OECD 평균(46,009달러)에 근접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2%로 전망(IMF)하며,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처음으로 중기 잠재성장률을 하회

- 경제성장률에 투자와 순수출의 기여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정부 소비 비중이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하였으며, 이에 경상수지에서 본원소득수지의 비중이 커짐
- 최근 무역, 투자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미국의 비중이 증가
 - * 미국 수출 비중: 13.5%('19) → 18.0%('23.9); 중국 수출 비중: 25.1%('19) → 19.7%('23.9)
 - * 아웃바운드 직접투자 중 미국 비중: 16%('19) → 23%('22)

○ 한국은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

- 산업 측면에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고, 전체 산업에서 대기업 비중이 높음
- 인구구조 측면에서 출산율 감소, 평균수명 증가로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어 복지 관련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길고, 노동생산성이 낮음
- 여성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낮으며, 성별 임금 격차가 크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2) 제2세션: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 발표 1. Confronting Ageing Society and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KIM Hyun-A)

- 한국은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높아짐

-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2022년 0.78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사회보장제도에 전례없는 부담을 가중
- 일반적으로 국가간 비교, 국가·시간 패널자료에서 소득 증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한국의 경우, 지역·시간 패널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건전한 편이지만, 증가율은 높은 편이며, 향후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국채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국가채무는 2021-26년 기간 동안 GDP 대비 18.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에 대응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여력 확보가 중요
 -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원칙이 세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 여력을 확보할 필요
 - 연금, 지방정부에 대한 의무적 재정이전, 지역 교육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재편(reform)이 시급
 - 한국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책, 제도적 지원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

□ 발표 2.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Fertility in Japan
(MATSUDA Shigeki)

- 일본의 낮은 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출산율이 2022년 1.26 수준으로 낮아짐
 -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비혼 인구 증가와 저출산에 기인하며, 그 중

비혼 인구 증가가 출산율 감소 기여율의 80-90%를 차지

* 물론, 출산율 감소(양육의 어려움)가 비혼 인구를 증가시키는 역인과 관계가 있음

- 출산율 감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나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감소는 청년 취업, 경쟁적인 교육 환경, 일과 가정 병립의 어려움, 경력 단절에 따른 비용 등 다른 요인들이 크게 작용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의 낮은 가정에서 출산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재택근무, , 여성의 정규직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남성의 양육(또는 가사) 참여 확대는 출산 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는데, 일본에서 출산을 미루는 가정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서베이 조사

□ 발표 3. Re-understanding of Negative Population Growth in China (WANG Guangzhou)

○ 중국 인구는 2022년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하여, 향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총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은 빠른 도시화와 도시 지역의 저출산 및 지역 불균형으로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출생아는 1,199만 명으로 2010년 1,378만 명, 2000년 1,379만 명과 비교하여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2020년 평균 기대수명이 81.66로 74.83('10), 71.40('00)에 비교하여 빠르게 증가

-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 63.89%로 상승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유년 인구 비중은 19.27%로 감소하고, 농촌지역의 가임여성 비중도 18.20%로 감소

* 중국의 도시화율: 36.09%('00) → 49.68%('10); 농촌지역의 유년인구 비중: 25%('00); 농촌지역의 가임여성 비중: 26.48%('00)

3) 제3세션: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Population and Policy Responses

□ 발표 1. The Map of China's Population Shrinkage and the Focus of Regional Policies (HU Anjun)

-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심각하며, 이러한 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와 경제발전이 더더 핵심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격차가 심화
 - 헤이룽장성(Heilongjiang), 길림성(Jilin)의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3,171만 명, 2,399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하여 662만 명, 348만 명이 감소
 - 감소한 인구는 19개 도시 밀집지역으로 이주하여 중국 인구의 12억 명(2020년 기준)이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86.32%를 차지하며, 2010년과 비교하여 인구 집중도가 심화
 - 인구 감소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낙후, 자원고갈 등 push 요인과 핵심 지역의 물적, 인적 자본에 대한 빨대 효과(siphon effect)의 pull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이를 심화하는 순환 효과(feedback loop)에서 발생
-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
 -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지역 내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 도시에 인구를 유입시켜 전체적으로 탈중앙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 디지털 기술을 통해 포용적인 성장과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높일 필요

□ 발표 2.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MIN SeongHee)

- 한국은 기술발전, 인구구조 변화로 대도시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와 지역의 격차가 가속화

- 2019년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였으며, 2020년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
 - * 전체 인구 중 서울시 인구는 2020년 기준 18.5%로 1990년(24.4%)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50.3%에 이룸
- 2020년 한국의 인구는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0만 명, 2070년 3,76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하며, 이러한 도시 및 지역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며, 서울과 가까운 충청도와 강원도의 인구가 증가
 - * 2020년과 비교하여 2050년에는 경기, 세종, 제주, 충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인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중소도시에서는 주로 젊은 인구 유출이 많아 노령화가 심각
- 이러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다층적인 국토 개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도시의 생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강화
 - 산학협력,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도시에 새로운 기술, 투자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도시의 특성화할 필요

□ 발표 3. Demographics and Economic Geography (SATO Yasuhiro)

-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산율 감소와 도시화의 심화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도시화 심화와 출산율 감소의 관계가 도시경제학에

서 연구되고 있음(Sato and Yamamoto, 2005; Sato, 2007; Sato and Aiura, 2014; Morita *et al.*, 2020)

-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 집중에 따른 높은 임금, 다양한 소비의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비싼 임대료, 장시간 출퇴근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상존하며, 이러한 외부효과는 가계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론적으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대도시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안정적인 균형이 존재(Sato, 2007)
- 가족정책, 부모 간 양육분담, 사회적 인식 개선, 유연한 노동시장 등은 소득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재정립 할 수 있음(Doepke *et al.*, 2022)



- 끝 -

< 별첨1 >

The 16th Trilateral Workshop of PRI-CASS-KIEP 세미나 세부일정

December 6 (Wed)	
18:30-20:00	Welcome Reception (French restaurant in Tameike-sanno)
December 7 (Thu)	
09:45-10:00	Registration
	Opening Remarks
10:00-10:10	1. WATABE Akira, President of PRI 2. LI Xuesong, Director of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Quantitative and Technological Economics, CASS 3. AN Sungbae, Chief Economist and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and Finance, KIEP
	Session 1: Economic outlook after the COVID-19 pandemic
	(Area: macroeconomics)
	■ Chair: SUZUKI Kosuke, Vice President of PRI
	Presentation (20 minutes for each)
10:10-11:50	1. UEDA Junji, Director-General of the Research and Administration Department, PRI “Economic outlook and Fiscal policy in Japan” 2. FENG Ming, Director of Division, Associate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Quantitative and Technological Economics, CASS “The 2035 vision goals of the Chinese economy and its driving forces” 3. YOON Sang-Ha, Head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Tea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and Finance, KIEP “Recent developments and outlook for the Korean economy”
	Discussion (10 minutes for each)
	1. TANAKA Osamu, Special Advisor for China Research, PRI 2. ZHANG Huihui, Deputy director of Division, Associate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Quantitative and Technological Economics, CASS 3. KIM Sungcheol, Director, MOEF
	Q&A (10 minutes)
11:50-13:00	Lunch Reception (Mita room in Mita Kaigisho)
	Session 2: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rea: common issues and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 Chair: JEONG Young Sik, Senior Research Fellow, KIEP
	Presentation (20 minutes for each)
13:00-14:40	1. KIM Hyun-A, Senior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Fiscal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Confronting ageing society and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2. MATSUDA Shigeki, Professor, Faculty of School of Contemporary Sociology, Chukyo University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FERTILITY IN JAPAN” 3. WANG Guangzhou, Director of Division, Senior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of Population and Labor Economics, CASS “Re-understanding of China's negative population growth”
	Discussion (10 minutes for each)
	1. KIM Hyo Sang, Head of International Finance Tea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and Finance, KIEP

	2. MORIIZUMI Rie,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Population Dynamics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3. LU Yang, Director of Division, Senior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of Population and Labor Economics, CASS Q&A (10 minutes)
14:40-15:00	Coffee Break
	Session 3: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population and policy responses (Area: related issues to Session 2) ■ Chair: FENG Ming, Director of Division, Associate Senior Research Fellow, CASS Presentation (20 minutes for each) 1. HU Anjun, Deputy director of Division,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Quantitative and Technological Economics, CASS “The Map of China’s Population Shrinkage and the Focus of Regional Policies” 2. MIN SeongHee, Research Fellow,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3. SATO Yasuhiro, Senior Research Fellow, PRI and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University of Tokyo “Demographics and Economic Geography” Discussion (10 minutes for each) 1. LU Yang, Director of Division, Senior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of Population and Labor Economics, CASS 2. BAEK Yaein, Associate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and Finance, KIEP 3. BESSHO Shunichiro, Senior Research Fellow, PRI and Professor,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Waseda University Q&A (10 minutes)
	Closing Remarks 1. WATABE Akira, President of PRI 2. LI Xuesong, Director of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Quantitative and Technological Economics, CASS 3. AN Sungbae, Chief Economist and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and Finance, KIEP
16:40-16:50	